

프로文學의 ‘붉은戀愛論’에 對하여

—카프의 愛情小說을 中心으로—

이 정 은

〈目 次〉

- | | |
|--|----------------------------|
| 1. 緒 論 | 3.2 國內의 論議 |
| 2. ‘붉은戀愛論’의 理論的 成立根據
—題材와 階級的 實踐으로서의 內容 | 4. 프로문학과 ‘붉은戀愛論’의 實踐의 展開樣相 |
| 3. ‘붉은戀愛論’의 논의 樣相 | 4.1 先驗의 當爲論과 機械的 公式主義 |
| 3.1 國外的 論議 | 4.2 現實認定論과 問題의 人物 |
| | 5. 結 論 |

I. 緒 論

韓國에서 프로문학은 自然發生的으로 始作되는 바 그 시발은 다소 例外的이다.

3.1 운동 후 당시 東京 留學生이었던 申湜과 李光洙가 ‘藝術의 民衆化論’¹⁾을 처음으로 제기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들은 ‘본질적으로 民衆的 視覺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²⁾들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프로문학’은 정확한 관점이 흐려진 채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에 단편적이거나 프로문학 및 문화의 정확한 소개³⁾가

1) 참조 1) 申湜, 「吾人의 생활과 예술」, 「開闢」, 1921.12., 2) 京西學人, 「예술과 인생」, 「開闢」, 1922.1.

2) 임규찬 엮음, 「일본 프로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사, 1987.4., p.23.

3) 참조 1) 山川 均著, 鄭栢譯, 「無産階級的 歷史的 使命」, 「新生活」, 1922.9., 2) 金明植, 「露西亞의 산文學」, 「新生活」, 1922.4., 3) 鄭栢, 「勞農 露西亞의 文化施設」, 「新生活」, 1922.6.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社會主義 運動이 形成되기 시작하는데, 文藝方面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22년 9월 文藝運動團體인 '焰群社'가 조직되고, 1923년 '파스큐라(PASKYULA)'가 조직된다. 이들 두 단체는 1925년 8월 한국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KAPF)으로 통합된다. 이 시기까지의 한국 프로문학은 '新傾向派'라는 명칭이 말해주는 것처럼 본격적인 계급문학의 성격을 띠었다기 보다는 다분히 '革命的 浪漫性'이 강한 個人意識의 表出이 大部分을 이루었다.⁴⁾ 한국 프로문학은 이 과정을 걸쳐 카프 결성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문학운동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후 카프는 朴英熙 대 金基鎮의 이른바 '內容·形式論爭'을 거쳐 朴英熙의 '目的意識論'을 받아 들임으로써 하나의 조직운동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이는 1927년 중반에 目的意識期로의 方向轉換 問題 거론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의 일환으로 1927년 초반부터 '藝術의 大衆化' 문제가 제기된다. 이 '藝術 大衆化'운동은 內容·形式문제와 目的意識期로의 方向轉換문제가 複合的으로 얹혀서 전개된다.⁵⁾

이러한 藝術大衆化論은 카프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國內論爭 및 그것의 바탕이 된 日本 프로문학의 大衆化論爭, 그리고 이들과 社會運動團體와의 影響關係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

4). 임규찬, 전계서, p.29.

5). 윤여탁, 「예술 대중화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先淸語文』 合本 6卷(第14, 15合輯),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敎育科, 1986.10., p.93.

6). 참조 1) 윤여탁, 「예술 대중화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先淸語文』 合本 6卷(第14, 15合輯),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敎育科, 1986.10., 2). 김철, 「1920년대 한국프로문학의 전개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방향전환론 및 대중화론을 중심으로-, 『批評文學』 3호, 1989, 韓國批評文學會., 3). 김철, 「예술대중화 논쟁의 배경에 대한 일고찰」, 『청람어문학』 제1집, 청람어문학회,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2., 4). 홍정선, 「KAPF와 사회주의 운동단체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한신논문집』 제3집, 1986.2., 5) 임규찬역음, 「일본 프로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사, 1987.4., 6) 김운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7) 전영태, 「대중문학논고」, 서울대 대학원, 1980., 8) 황국명, 「소설대중화론에 나타난 소통가능조건」, 『국어국문학』, 동아대학교, 1985.

었다.⁷⁾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연구는 藝術大衆化論의 이론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비교적 충실히 다루었지만 그 實踐的 成果物들의 검토에는 비교적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⁸⁾ 연구의 이러한 편향성은 카프의 움직임과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다.

당시 이 논쟁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金基鎭은 文學主義에 근거해 形式論理를 펼쳤고, 이로 인해 政治主義에 근거를 둔 林和와 趙重滾을 필두로 하는 제 3전선파의 공격을 받게 된다. 여기서 제 3전선파가 득세한 결과 카프는 組織運動으로서의 實踐的 役割 遂行에 지나치게 執着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作品의 固定化現狀을 초래하게 된다. 金基鎭의 경우 이 논쟁에서 일정하게 작품 위주로 논의하여 일면적이거나 프로문학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⁹⁾ 제 3전선파는 이를 '抽象的 原則論'¹⁰⁾에 입각해 批判하기만 했고 이를 實踐的 作業으로 轉換시키지 않았다.¹¹⁾ 즉, 당시 大衆化 論쟁은 주로 批評的 次元-그나마도 組織運動의 차원-

7) 당시 藝術大衆化論의 실천적인 작업에 대한 연구는 근자에 와서 재검토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는 崔元植과 李注衡의 작업에서 살펴 볼 수 있다. 崔元植은 沈熏에 대한 기존논의들 중 柳炳奭, 洪以燮, 李注衡 등의 작업이 沈熏을 再評價할 계기를 만들었음을 지적하면서 그의 전반적인 면모를 살펴, 그가 金基鎭의 大衆化論을 실천적으로 받아들여 '프로문학의 대중적 회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적 실천의 결과가 沈熏의 30년대 장편인 「東方的 愛人」(1930)에서 「常綠樹」(1935)에 이르는 작품들로 이들을 再評價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李注衡 역시 金基鎭의 通俗小說論을 논하는 자리에서 金基鎭 자신이 쓴 「海潮音」, 韓仁澤의 「旋風時代」, 沈熏의 「東方的 愛人」, 「不死鳥」, 「織女星」, 玄鎭健의 「赤道」 등이 金基鎭의 通俗小說論과 부합되는 長篇小說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로 볼때, 지금까지 주로 批評的 次元에서만 전개되어 온 藝術大衆化論議는 작품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조: 1) 柳炳奭, 「沈熏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4., 2) 洪以燮, 「1930년대초의 농촌과 심혼문학」, 「創作과 批評」, 1972. 가을., 3) 李注衡,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1., 4) 崔元植, 「沈熏研究序說」, 崔元植의 「韓國近代文學史의 爭點」, 창작과 비평사, 1990., 5) 李注衡, 「金基鎭의 通俗小說論」, 「국어교육연구」 15,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研究會, 1983.12.

에 局限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대중화론을 수용한 작품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결과 이를 토대로 한 연구 역시 당시의 비평적 논의를 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金基鎮과 제 3전선파가 大衆化 論爭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본고가 논의하고자 하는 ‘붉은 戀愛論’을 다룬 작품들은 역시 藝術大衆化論의 실천적 양상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주도했던 이들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하면서 전개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붉은 戀愛論’은 오히려 카프가 이론의 공급처로 삼았던 나프의 藝術大衆化論의 실제 창작경향과 밀접히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이를 연속적으로 다룬 李箕永이나 宋影 등은 카프의 國內派로서 金基鎮과도 연결되며, 또한 理論優位의 제 3전선파와는 달리 專門 創作集團에 속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¹¹⁾

또 한편으로, 이와는 달리 金基鎮의 藝術大衆化論에 근거한 일군의 通俗的 戀愛를 다룬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들은 傾向小說이라는 점, ‘붉은 戀愛’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위의 작품들과 일치한다. 하지만, 양식상에서 전자는 短篇小說 그리고 후자는 長篇小說이라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 내용상으로도 전자는 프로문학의 성격을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는 반면, 후자는 말 그대로 당시 通俗小說과 보조를 맞추려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이들 양작품군은 그 성격상 나프의 경향과 金基鎮의 논리가 지닌 차이점을 각각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長篇小說에 대해서는 최근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고

8) 임규찬, 전제서, p.121.

9) 李注衡, 「金基鎮의 通俗小說論」, 『국어교육연구』 15,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研究會, 1983.12, p.38.

10) 임규찬, 전제서, p.115.

11) 참조. 박성구, 「일제하 (1920년대 중반-1930년대초) 프롤레타리아 예술 운동에 관한 연구-KAPF 경성 본부와 동경 지부의 대립적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연구회편,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 文學과 知性社, 1988.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들 短篇小說에 대한 연구는 먼저 '通俗的이지 않은' 大衆化論의 實踐의 樣相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通俗的' 長篇小說과의 비교를 통해 나프의 논리와 金基鎭의 대중화 논리의 차별성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당시 당시 無產者社 내지는 제 3전선파로 일컬어지는 理論優位の 東京派에게 主導權을 빼앗겼던 專門創作集團으로서의 國內派를 포함한 국내작가들의 실천적 대응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고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붉은戀愛論'의 실천적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2장에서 '붉은戀愛論'이 프로문학내에서 성립될 수 있는 근거로서 題材와 階級的 實踐으로서의 內容의 관계를 기존의 논의를 통해 살필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國外, 특히 소비에트와 나프의 논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나서 다음으로 國內의 논의들을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당시 카프 진영 내에서 '붉은戀愛論'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살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通俗的 傾向小說'과 카프내의 대립문제, 그리고 短篇小說과 長篇小說간의 관계등은 논지의 관계상 여기서 다루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룬다. 또한 이 논의에서 藝術大衆化論의 全般的 樣相이 이미 既存論議들에서 상세히 밝혀져 있는 점을 감안해 본고가 필요로 하는 부분 이외에는 가급적 省略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 '붉은戀愛論'의 理論的 成立根據

一 題材와 階級的 實踐으로서의 內容一

藝術大衆化論 一般은 그 성격상 주로 內容과 形式의 문제에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동안 마르크스主義 美學에서 內容과 形式간의 관계는 수도 없이 거론되어 왔다. 특히 나프의 大衆化論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와 '어떠한' 예술을 가지고 갈 것인가의 논쟁¹²⁾은 內容對

形式의 문제가 이 論爭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그 일부로 거기에 기반을 둔 '붉은戀愛論' 역시 얼핏 보기에는 內容 對 形式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차라리 마르크스主義 美學에서 항상 강조되고 있고, 또 자칫 혼동되기 쉬운 문제인 內容 對 題材의 문제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 三者間(內容, 形式, 題材)의 관계는 당시 마르크스주의 美學 진영내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당시 나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에 속한다. 하지만, 나프의 논쟁을 그대로 받아들이다시피 했던 카프의 경우 大衆化論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했던 金基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¹³⁾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붉은戀愛論'이란 외견상 內容의 문제인 것으로 비쳐진다. 여기서 '붉은'이란 수식어를 함께 고려할 때는 더욱 그러한 느낌이 강할 것이다. '붉은'이란 수식어는 뒤의 '戀愛論'이란 단어의 성격을 어느 정도 규정지워주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식어가 이것의 방향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붉은戀愛', 즉 마르크스主義者의戀愛란 것이 단순히 '붉다'는 수식만을 가지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천적인 방향개념을 가질 때에야 좀 더 온당하게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題材로서의 '붉은戀愛論'이 어떻게 內容으로서 방향성을 갖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의 구별을 위해서는 우선 題材와 內容및 形式 삼자간의 차이점을 우선 밝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이들에 관해 마르크스主義 美學 진영내에서 논의된 내용들

12) 임규찬, 전제서, pp.100-101 참조.

13) 특히 金基鎭이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주로 日本 프로 批評家 중 藏原維人の 理論에 影響을 받았으면서도 리얼리즘을 專門的, 形式的 問題로서, 그리고 小說의 樣式問題로 제시하여 그와는 편차를 보임과 동시에 誤謬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藏原維人에게 '社會民主主義의인 大衆化論, 大衆의인 形式論理의 觀點이라고 批判받은 貴司山治와 林方雄의 見解를 빌어 大衆化論을 펴고 있다. 이러한 金基鎭의 태도는 內容과 形式의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며, 또한 內容과 題材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이기도 하다.

을 살펴 봄으로써 '붉은戀愛論'의 이론적 근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소비에트 아카데미의 문예학자인 누시노프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문학의 내용은 모든 계급적 존재, 모든 계급적 실천에서 빚어지는 현실에 대한 계급의 관계이며, 비껴 말하면 계급의 세계관과 별개의 것일 수 없다는 말이다.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계급적 존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한, 내용은 자기와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예술작품의 형식을 결정한다. 내용은 재재의 선택, 재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태도, 재료의 선택과 함께 재료를 수용하고 재현하는 특질들을 결정하며, 작품에 표현되는 형상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형식과 내용의 통일은 작가의 세계관과 그 양식, 작품의 관념과 그 형상의 통일이다.¹⁴⁾

누시노프의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의 内容이란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보통 内容을 '素材' 내지는 '題材'라든가, 작품의 줄거리를 의미하는 개념인 '스토리(story)' 내지는 '모티프(motif)'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아무런 방향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데서 엄밀한 개념에 속하지 못한다. 여기서 방향성이란 곧 작가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곧 世界觀을 부여함으로써 획득되는 의미의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内容이란 어떠한 題材에 작가가 자신의 世界觀을 부여함으로써 일정 정도 방향성이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누시노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内容은 勞働者 階級の 世界觀이 부여된 階級的 성질의 것이다.

현실사회는 계급에 의해 여러 층으로 분화되어 있다. 그 속에 위치한 인간 역시 각자의 계급적 소속을 달리하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계급의 성격에 의해 사회에

14) 누시노프, 세이트린지움, 백효원 옮김, 『사회주의 문학론』, 과학과 사상, 1990, pp.37-38.

반응한다. 여기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 역시 그의 계급적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작가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동일한 제재도 작가의 계급적 소속이 다름에 따라 다른 형식을 빌어 보여지게'¹⁵⁾ 될 것이다. 마르크스主義 美學에 의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가의 계급적 실천이다.

범박하게 정의하자면 階級的 實踐이란 勞動者의 階級意識에 基礎해서 나타난 社會的 實踐이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Ideology)가 '계급적 실천을 실체화한 것'¹⁶⁾이라 할 때, 계급의 사회적 실천은 모든 이데올로기의 여러 형태의 내용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하나의 이데올로기 형태로서 존재하는 문학작품의 내용 역시 작가의 계급적 실천에 의해 방향성이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내용이란 '작가의 세계관과 사상적 방향'¹⁷⁾에 의해 선택되고 가공된 제재로서 '계급적 실천이

15) 누시노프, 세이트린 지음, 백효원 옮김, 上揭書, p.37.

16) 이데올로기란 용어는 흔히 <虛偽意識 false consciousness>이라는 개념과 동의어로 쓰인다. 하지만 후자의 개념은 극히 複雜한 것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사회현실에 대한 과학적 이해보다도 관념론적 해석을 성립시키고 말기 때문이다. 양자에 대한 混同은 엥겔스(F. Engels)의 오해에서 유래한다.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란 말을 순전히 幻想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레닌(V. I. Lenin)이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그는 欺瞞이나 幻想으로서 정의하려고 하는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이데올로기를 虛偽意識이라고 말하는 한 참 意識이 존재하며, 모든 이데올로기가 幻想이고 誤謬라고 한다면 이데올로기 사상의 사회학적 기반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虛偽意識과 同一視하여 受動性과 사회질서에서의 默從을 유도하는 閉鎖的, 教條的 體系로 생각한다면 그 실제의 사회적 기능은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데올로기는 資本主義 체제 내의 다양한 서로 葛藤하는 勢力을 하나의 社會的, 歷史的 統合體로 結合시켜 가는 강력한 媒體이다. 階級支配를 위해서 이처럼 유연하고 역동적인 武器는 없다.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勞動者 階級的 일상생활과 뜻있는 關聯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正統性的 維持機能을 다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이데올로기가 虛偽意識이라면 支配階級이 從屬階級에 대한 支配를 正統化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階級的 實踐을 實體化한 것>이다. 外的, 社會的 世界的 信念, 價值, 思想의 一貫된 構造로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앨런 스윈지우드 지음, 김영수 옮김, 「대중문화의 신화」, 현암사, 1984, pp.125-128.
17) 누시노프, 「세계관과 방법 문제의 검토」, 로젠탈의 지음, 홍형식옮김, 「창작방법론」, 과학과 사상, 1990, p.60.

며, 모든 사회적 현실에 대한 계급의 일정한 관계, 즉 계급의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주어진 사회적 현실 이외의 것이 아님¹⁸⁾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 내용이란 것이 단순한 줄거리나 소재 혹은 재제가 아니라 점은 명백해졌다. 여기서 다시 재제의 성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내용과의 차이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題材란 加工되지 않은 채로 작자에게 단순히 주어진 對象, 즉 '생생한 現實로부터 流離된 現狀, 즉 '하나의 抽象에 불과'¹⁹⁾한 것이다. 따라서 재제 그 자체는 작자가 일관된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방향성을 부여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의도 갖지 못한다. 재제 그 자체는 아무런 사상적 방향성을 지시해 줄 수도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革命的 事件과 革命的 性質을 혁명화하지 않고 더욱 反動的인 것으로 만'²⁰⁾드는 逆效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재제가 작품구성에서 비록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재제가 '얼마만한 비중을 가진 것'인가가 아니라 재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면 이것은 이미 個別化되고 抽象化된 재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統一된 觀點에 의해 整理되고 방향이 주어진 재제, 곧 主題의 문제가 된다. 여기서 주제, 곧 이 재제를 정리하고 다루는 것은 바로 앞서 지적한 '작가의 世界觀과 思想的 方向'인 것이다.

재제와 내용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의 정립은 위에서 든 소련의 예 뿐만 아니라 나프의 경우에서도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프는 藝術大衆化論爭을 통해 관점을 정립하게 된다. NAPF 가맹단체 중 주도적 역할을 한 '전일본 프롤레타리아작가동맹'은 1929년 2월에 창립대회를 개최한 후 전반적인 활동방침

18) 누시노프, 세이트린지음, 백효원옮김, 前掲書, p.37.

19) 藏原惟人, 「예술적 방법에 대한 감상」, 「NAPF」, 1931.9. 임규찬, 전제서, p.230에서 재인용.

20) 누시노프, 「세계관과 방법 문제의 검토」, 로젠탈의 지음, 홍현식옮김, 前掲書, p.59

9가지를 정하는 데 그 중 2장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작품의 제재는 모든 방면에서 취해져야만 한다. 최근 우리의 작품에서 노동자, 농민의 투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이러한 제재가 아직 전위적 부분에만 한정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시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제재를 전위적 요소에 의해 지도되고 영향을 받아 방향지워진 모든 부분의 투쟁, 모든 사회적, 일반적인 사실 및 다양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생생하게 파악하여 이것을 올바른 계급적 관념에서 묘사해야만 한다.²¹⁾

이 논쟁을 통해 NAPF의 이론적 지도자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 藏原維人은 中野重治와의 논쟁을 통해 내용과 형식 그리고 제재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 작가들이 당시 狀況이 ‘當爲的으로 要求하는 대중의 모습’만을 묘사하고 있는 경향을 批判하고 대신 ‘살아 있는 대중’을 그릴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또 프롤레타리아적 革命意識으로 일관하면서도 각자의 特殊性에 상응하는 예술, 즉 무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항상 유지하면서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데 있어 필요한 전제가 되는 모든 자연발생적, 노동자적, 농민적, 소시민적인 예술적 형상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작가가 전투적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을 가질 때만 올바른 작품의 주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주제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재까지도 전투적 프롤레타리아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해방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을 그린다는 것이다. 그러한 모든 대상을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유일한 객관적 관점에서 그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작가의 관점이 지 제재가 아니며, 따라서 ‘투쟁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만이 제재의 대상이 될

21) 임규찬, 前掲書, p.104.

수 있다'는 견해는 청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 재재는 아직 아무런 방향성이 지워지지 않은 '生素材'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내용은 그러한 재재를 작가가 자신의 세계관과 사상적 방향성을 가지고 규정지워 놓은 제곱적 실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 과정에서 재재의 선택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작품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재가 작가의 세계관과 사상적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과 사상적 방향이 재재의 선택 혹은 그것을 가공하는 성질까지도 규정하기 때문이다.²²⁾ 이러한 재재와 내용의 관계에 의거한다면 프로 문학에서 '戀愛'라는 재재를 다룬다는 것이 하등 階級的 觀點을 흐리게 하고, 또 해를 끼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문제는 '戀愛를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戀愛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政治主義'에 함몰된 당시의 이론가나 작가들의 경직성때문에 결코 쉽게 처리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상세히 검토될 것이다.

3. '붉은戀愛論'의 論議樣相

3.1. 國外的 論議

위에서 살펴 본 바, 내용과 재재간의 관계에 대한 온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자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엄밀한 개념의 정립을 하지 않은 데서 온 오류일 것이다. 이 문제는 개념 정립의 단계에서도 드러나지만, 실제 어떤 대상을 다루고자 할 때, 한층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本考가 다루고자 하는 '붉은戀愛論'이라는

22) 누시노프, 「세계관과 방법 문제의 검토」, 로젠탈의 지음. 홍판식 옮김, 前掲書, pp.59-60.

구체적인 주제와 연결시켜서 살펴보기로 하자.

마르크스主義 文學者들, 여기서 일반적인 마르크스 主義者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 그 중 일부는 戀愛라는 감정 자체를 현실의 모순을 회피하는 도피적인 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에 ‘붉은’이란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戀愛’란 표현 자체가 이미 마르크스主義에 배치되는 것으로 고려하는 탓일 것이다. 이 점은 실제 마르크스主義者들 일부가 이것을 부르조아의 感傷主義로 運動에 敵對인 것이라 인식하고 있는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당시 대표적인 마르크스主義 문학자인 킬포친이 문학과 연애에 대해 언급한 것을 통해 살펴 보기로 하자.

임의의 계급(부르조아)의 예술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정당한, 그러나 사회적으로 해석하자면, 현실로부터 유리된 테마인 이러한 사랑의 테마는 부르조아 사회에 있어서 편이나 위험한 진실을 묘사할 필요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좋은 구실이 되는 것이다.²³⁾

……현대의 위대한 계급투쟁을 회피하려는 예술은 자본주의 사회를 긍정하려고 하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타락을 피하지 못한다.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실재에 있어서는, 연애적이며 말초적인 예술일지라도 계급투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는 없다. 그것은 부르조아에게 이롭게 독자를 교육하며, 프롤레타리아트와 노동대중의 혁명적 의식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해로움을 주는 것이다.²⁴⁾

위에서 보듯 킬포친은 연애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살피고 있다. 그는 연애가 ‘현실로부터 유리된’ 테마로서 ‘위험한 진실’이라든가 현실의 ‘본질적인 측면이나 갈등을 올바르게 그린다는 과제를 회피’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연애문학은 ‘생활의

23) 킬포친, 「창작방법의 확립을 위하여」, 루나찰스끼의, 김휴억음, 「사회주의 리얼리즘」-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문제, 일월서각, 1987, P.87.

24) 킬포친, 「창작방법의 확립을 위하여」, 루나찰스끼의, 김휴억음, 上揭書, P.88.

말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을 묘사'함으로써 부르조아에게 가장 '적절하고 정당한 예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서 킬포친 역시 연애를 테마라 하여 내용 곧 주제와 재재를 혼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러한 부르조아 연애를 다른 문학이 프로 문학과는 역으로 역시 계급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논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가 연애의 계급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연애를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부르조아 연애를 다룸으로써 그것의 虛僞를 暴露하든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의 연애를 다룸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재재와 내용을 동일시한 데서 오는 오류라 할 수 있으며, 또한 愛情과 社會運動을 무슨 커다란 '敵對인 矛盾인듯 誤解'²⁵⁾한 데서 빚어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킬포친의 논의를 그대로 따라 가자면 연애는 부르조아에게만 있고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전혀 필요없고 오히려 有害하지만 한 것이 된다. 만약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에게는 계급적인 의식만 필요하며 인간적인 감정이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無階級的이고 人間的인 社會를 건설하겠다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의 理想과는 결정적으로 背馳되는 논리가 된다. 이러한 公式性, 機械性은 바로 대중들이 프로 문학을 멀리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로 작용하게 된다.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여타의 '人間的 感情'에 대한 硬直된 態度는 俗流 마르크스主義 批評家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다. 이러한 誤謬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고 있는 예를 부하린의 발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하린은 反階級的인 性格을 지닌 에세닌 류의 문학들이 마르크스主義者들에게 有害한 影響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년청년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5) 김성수, 「이기영 소설의 서설적 검토」, 『成大文學』第26輯,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8. p.158.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따위의 문제-그 문제가 아무리 중요할 지라도-보다 훨씬 광범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공산주의자이든 노동자든지 간에 그들은 결코 두발 달린 추상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다. 그들은 괴로워하고 즐기며, 투쟁하고 연애 하며 생활하다가 죽어간다. 그들 각자는 개인일 따름이지 결코 두발 달린 통계적 단위도 아니며, 또 당국이 정책적으로 결의한 조문도 아니며 색인도 아니고 단평도 아니다.

.....

에세넨은 왜 청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가?.....그것은 우리의 이데올로그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못한 데 반하여 세르게이 에세넨은-그것이 비록 본질적으로 유독(有毒)한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 해도-그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26)

부하린의 이러한 지적은 흥미할 만한 것이다. 그는 여기서 프로 문학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또한 항상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해 온 기계적 공식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에세넨을 예로 들어, 마르크스主義 작가들이 목적의식에 함몰된 나머지 작품에서 예술적인 형상을 잃어버린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우선 갖추도록 충고하고 있다. 그가 지적한 바 에세넨의 작품이 ‘有毒한 형식을 포함하고 있어도 독자의 심금을 울려준다’는 것은 그의 작품이 비록 부르조아의 頹廢性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살아 있는 구체적인 인간의 감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특수한 예술장르인 문학이 단지 목적의식만 가지고서는 성립될 수 없음을 온당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적 형상화의 문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미 지적한 바 ‘傾向’ 내지는 ‘傾向性(Tendenz)’의 개념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26) 藏原惟人,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신단계」-예술의 대중화와 전(全) 좌익예술가의 통일전선으로, 「前衛」, 1928.1, 임규찬, 前掲書, p.127에서 재인용.

루카치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 미학에서 傾向性이란 藝術家가 자신의 작품으로 立證·宣傳·例證하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政治的·社會的 追求²⁷⁾를 말한다. 그는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비록 문학의 경향성을 비판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비판이 진정한 문학에 경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그들은 객관적 현실 그 자체가 운동이 아무런 방향도 없이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심오한 경향을, 즉 그 자신의 기본적 경향을 지닌 발전과정이라 보았다는 것이다.²⁸⁾

여기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반대하는 '나쁜 傾向性'이란 露骨的인 道德的 說教, 直接的인 敎訓, 時代精神의 단순한 메카폰에로의 形狀轉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靑年 獨逸派' 詩人들을 批判했던 것은 그들 작품의 形象의 藝術的 不完全性에 대한 것이고 그들이 '文學技法의 缺陷'을 '政治的 示唆'로 '補完하려고' 했던 점이다.²⁹⁾ 傾向 즉, 피상적으로 말해 작가의 意圖는 작가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狀況이나 事件' 자체로부터 생겨나지만 또한 뚜렷이

27). 게오르크 루카치, 「마르크스, 엥겔스의 미학적 저작에 대한 입문」, K. 마르크스, F. 엥겔스 지음, L. 박산달, S. 모라브스키 지음, 김대웅 옮김, 「마르크스, 엥겔 문학예술론」, 한울총서 74, 1988, p. 21.

28). 게오르크 루카치, 「마르크스, 엥겔스의 미학적 저작에 대한 입문」(K. 마르크스, F. 엥겔스 지음, L. 박산달, S. 모라브스키 지음, 김대웅 옮김, 上掲書, p. 220.)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반대하는 '나쁜 경향성'이란 노골적인 도덕설교, 직접적인 교훈, 시대정신의 단순한 메카폰에로의 형상전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이 〈청년 독일파〉시인들을 비판했던 것은 그들의 형상의 예술적 불완정성에 대한 것이고 그들이 '문학기법의 결함'을 '정치적 시사'로 '보완하려고' 했던 점인데, (소연방과학아카데미판, 편집부역, 「미학의 기초」1, 논장, 1988, p. 226.) 이 점은 당시 한국 프로문학의 작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경향'이란 그 자체가 작품의 예술적 본질과 예술적 묘사로 부터, 다시 말해-앞에서 언급한 논조에 따라- 이 현실의 변증법적 반영이 현실인 자체로부터 유기적으로 성장해 온다면, 오직 이러한 경우에만 예술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고 예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루카치, 上掲論文, p. 221.)

29). 소연방과학아카데미판, 편집부역, 前掲書, 1988, p. 226.

그것을 지적함이 없이 생겨나야 한다'³⁰⁾는 엥겔스의 지적은 바로 '올바른 경향'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하린이 의도하는 바는 마르크스主義 문학자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인간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제재를 살아 있는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계급적으로 그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性和 藝術的 形象性的 결합이란 문제는 나프의 경우 大衆化論爭을 통해 爭點化된다.

나프의 맹원이었던 貴司山治, 德永直 등의 작품은 大衆小説的 傾向 때문에 초기에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작가들은 1931년 부터 '작품의 고정화'에 반발하고 '작품의 다양화'를 내걸고 愛情小説을 발표하기 시작했다.³¹⁾ 1930-1931년 간의 日本 프로문학은 이처럼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적 관점에서 벗어나 題材의 多樣性 문제로만 치닫는 경향 때문에 創作方法論의 수용을 초래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³²⁾ 藏原惟人は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고 '主題의 強化'와 '主題의 積極性'을 주창하게 된다. 즉, 계급투쟁은 인간생활의 모든 국면에 존재하므로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주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³³⁾ 그의 「예술적 방법에 대한 감상」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구체적인 한 예로서 '붉은 戀愛論'을 명확히 정리하고 있다.

藏原은 나프의 작가들이 프로문학의 千篇一律의인 劃一化傾向을 愛情小説을 통해 타개하려 했지만, 그것이 프로문학에 조금도 공헌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여기서 그가 비판하는 것은 '애정문제' 역시 그들의 작품에서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論點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애정문제'를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정문제'를 어떻

30) In einem Brief an M.Kautsky vom 26. Nov. 1885, in : K.Marx/F.Engels, Ausgewählte Briefe, a.a.O., S.468., 게오르크 루카치, 前掲論文, p.221에서 재인용.

31) 임규찬, 前掲書, p.197.

32) 임규찬, 前掲書, p.184.

33) 임규찬, 前掲書, p.197.

게 다루고 묘사할 것인가가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애정의 문제' 자체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중심적 주제가 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도 이 문제는 오로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에서만 해결된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단지 계급투쟁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프롤레타리아 연애 일반을 우리가 문제로 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작품속에서 '애정문제'를 묘사할 경우에도 작가는 프롤레타리아 연애 일반을 처음부터 작품의 중심적 주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 경제, 문화, 일상생활 등 모든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을 작품의 주요 주제로 삼아야 하며, 프롤레타리아의 '애정문제'도 그 일부로서 묘사해야 한다. ……실제로 연애는 인간생활의 일부임에 틀림없다. 때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생활의 일부이지 결코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애정문제'만으로는 총체적인 '인간'을 나타낼 수는 없다. …… 뿐만 아니라 분리된 연애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며, 거기에 '인간성'의 일면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체적인 '인간성'이 아니라 추상적 '인간성', 즉 인간성 일반이다.³⁴⁾

여기서 戀愛가 '中心的 題材'가 될 수는 있어도 '中心的 主題'가 될 수는 없다는 藏原의 지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感情을 가진 인간인 이상 프롤레타리아에게도 戀愛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은 일단 階級鬭爭보다 한 단계 위의 것이다. 戀愛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藏原의 지적처럼 戀愛도 階級鬭爭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조아 작가들이 가정생활과 연애생활을 즐겨 다루는 것은 그것이 일부 부르조아들의 '최대의 관심사'³⁵⁾이기 때문이다. 그 반면 프로문학은 사회적이고 총체적인 인간을 그리려 한다. 따라서, '붉은 戀愛'가 중심적 제재

34) 藏原惟人, 「예술적 방법에 대한 감상」, 「NAPF」, 1931.9., 임규찬, 前掲書, pp.235-236에서 재인용.

35) 藏原惟人, 「예술적 방법에 대한 감상」, 「NAPF」, 1931.9., 임규찬, 前掲書, p.237에서 재인용.

가 된다고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 戀愛一般을 중심적 주제로 다루지 않는 것은 그것이 總體的인 人間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부르조아문학과는 달리 프로문학은 '人間的 感情'인 연애도 一貫된 社會的, 階級的 觀點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으면 안된다³⁶⁾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프로문학에서 戀愛를 다룬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시비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뒤에 실제 작품의 예에서도 살펴 보겠지만, 프로문학 작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致命的인 弱點인 公式性的의 문제는 '붉은 戀愛'를 다룬 작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藏原은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작가, 예술가는 사회적 인간의 모든 사상, 감정, 행동 및 그 상호관계를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인간의 '애정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일본의 프롤레타리아작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보이고 있다. 나는 앞에서 프롤레타리아작가들이 '계급적 의무'와 '개인적 감정'을 형이상학적으로 대립시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작가의 '계급적 의무'와 '개인적 감정'의 대립은 봉건적, 부르조아작가의 '의리'와 '인정'의 대립보다도 더욱 '비마르크스주의적'이었다.……그런데 우리 작가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심적 관계 자체내에서 계급적 의무의 관념과 개인적 감정 또는 개인적 행복을 서로 분열시켰으며, 양자의 대립·갈등 속에서 줄거리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원래 통일되어 있어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통일되어 있는 이 양자는 그 중 어느 것이 다른 것을 '희생'시키거나 또는 양자가 기계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 작품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았던 것이다.³⁷⁾

36) 藏原惟人, 「예술적 방법에 대한 감상」, 『NAPF』, 1931.9. 임규찬, 前掲書, pp.238-239에서 재인용.

37) 藏原惟人, 「예술적 방법에 대한 감상」, 『NAPF』, 1931.9. 임규찬, 前掲書, pp.246-247에서 재인용.

프로 문학의戀愛小説에서 주된傾向은 '人間的 感情이 分離되고 固定化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藏原은 人間的 思想과 感情은 流動的이기 때문에 인간의 感情과 義務의 觀念을 對立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경향이라 비판한다.³⁸⁾ 아래에서 그는 프로 문학작가들이戀愛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階級的 義務'와 '個人的 感情'을 機械的으로 對立시키는 방식 자체가 이 양자간의 관계를 잘못 인식한 탓이라는 것이다. 이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관점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애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계급적 필요'에 의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개인적 감정'은 희생당하게 되고, 결국 그로부터 의무의 관념과 감정 사이에 '비극적 분열'이 생겨나 '비통한 결핍'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의 개인적 행복은 계급적 사업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실현된다. 현실적으로도 계급적 사업의 필요에 의해 두 사람의 애인이 헤어진다는 것은 그다지 '비극적'이지도 않으며 '비통'한 것도 아니다. …(中略)…우리가 묘사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사랑이 계급적 필요에 의해 희생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랑보다도 강한 것' 속으로, 개인적 행복이 그보다도 '더욱 커다란 행복' 속으로 용해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계급적 필요'와 '계급적 의무'를 개인적 행복과 대립시켜, 그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묘사할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도 강한 힘', '사랑보다도 큰 행복'으로 묘사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녀 간의 사랑이나 개인적 감정 등을, 무심결에 내뱉는 공기처럼 마음내키는대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현실에서는 '계급적 필요'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 이러한 '비극적 분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양자는 통일되어 있다. 그것은 '계급적 필요'라는 것이 기계적 임무가 아니듯이, 개인적 감정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³⁹⁾

38) 藏原惟人, 「예술적 방법에 대한 감상」, 『NAPF』, 1931.9. 임규찬, 前掲書, pp.249-250에서 재인용.

39) 藏原惟人, 「예술적 방법에 대한 감상」, 『NAPF』, 1931.9. 임규찬, 前掲書, pp.250-251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보듯, 藏原維人の戀愛問題를 보는 태도는 철저히 계급적 관점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戀愛와 階級的 事業에서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의 절대적 우위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戀愛를 좀 더 ‘人間的視野’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階級鬭爭과 戀愛 간의 중요성의 정도, 관계 등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다소간 기계적인 태도가 엿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다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대의 다른 이론가들이나 작가들의 논리와 비교해 볼 때 藏原의 논리는 차라리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상당히 유연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國外,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프로 문학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蘇聯과 日本 프로 문학에서 다루어진 ‘붉은 戀愛論’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는 韓國 프로문학 내에서 다루어진 ‘붉은 戀愛論’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보기로 한다.

3.2 國內의 論議

나프의 경우는 앞 절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 藝術大衆化論爭과 맞물려 ‘붉은 戀愛論’에 대해 이론적, 실천적 작업이 활발하게 행해졌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나프의 논의 과정을 그대로 수입하다시피한 카프의 경우 이러한 작업은 그다지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文學的 實踐을 주장했던 金基鎮의 논리가 組織的 實踐을 주장했던 제 3전선파의 논리에 밀린 탓임은 앞서 살펴 본 바 있다. 이러한 탓으로 카프의 경우는 이 문제에 관해 문학적인 측면에서 논한 글보다는 ‘붉은 戀愛’ 그 자체의 성격에 대해 논한 글이 더욱 눈에 띈다.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카프내에서 ‘붉은 戀愛論’을 비록 유치한 수준이나마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역시 藝術大衆化論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김기진이다. 「통속소설 소고」를 위시한 일련의 글들을 통해 藝術大衆化 論爭을 불러 일으킨 그는 ‘통속소설’에 주안점을 두고 논리를 전개했다. 그의 통속소설론에서 연애에 관련되는 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金基鎮은 통속소설이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大衆들의 '心理에 迎合'해야 하고, 그들의 의식에 맞춰 '이데올로기를 稀釋'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통속소설의 결정적 요건으로 그가 제시한 内容-題材는 '普通人의 사회와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見聞의 限界를 넘지 않는 것'⁴⁰⁾이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희석화 발언으로 '원칙의 치명적, 무장해제적 오류', '합법성의 추수'라는 격렬한 非難을 받았지만,⁴¹⁾ 여기서도 内容과 題材를 同一視하는 誤謬를 범하고 있다. 어쨌거나 그는 이와 같이 한정된 제재의 범위 내에서 보통인의 感情과 思想 및 文章에 대한 취미를 중심으로 해서 창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보통인의 견문과 지식의 범위에 '연애에서 생기는 갈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연애의 갈등을 단순히 묘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이면(裏面), 동기의 근저에 작용한 歷史的, 社會的, 物質的 諸條件의 暴露를 企圖'⁴²⁾할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그는 통속소설에서 이 이상의 논의는 독자들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金基鎮은 이후 「대중소설론」에서 다시 戀愛에 대해 논하고 있다.

男女間의戀愛關係도勿論 조흔題目이나 그러나情事場面の頻頻한描寫는避할 것이
오. 될수있는데로 그戀愛關係는背景이되든지, 或은中心骨子가되든지하고서 實事件을
보다더단히取扱하도록만들어야 한다. 무슨싸담이나하면 所愛하고失戀하고 所戀愛하고
失戀하는것의連續일것가트면 單純히小說作法的技巧上見地만으로도 拙劣한것이 될뿐
더러(무세의 「近代人의 告白」가튼것도잇기는잇지만 그런것은 여드름박아지文學青年과
少女나조하할물건이다)돌이어卑劣한享樂趣味를 養成하는結果를가져오는싸담이다.⁴³⁾

40) 金基鎮, 「통속소설 소고」(중), 「朝鮮日報」, 1928.11.10., 임규찬, 한기형편, 「제1차 방향전 환론과 대중화론」-카프비평자료총서3, 太學社, 1989, p.485에서 재인용.

41) 林華, 「濁流에 抗하여」-文藝의 인時評, 「朝鮮之光」, 1929.8, 임규찬, 한기형편, 上揭書, p.604에서 재인용.

42) 金基鎮, 「우리들의 견해」(상), 「朝鮮日報」, 1928.11.17, 임규찬, 한기형편, 上揭書, p.492에서 재인용.

43) 八峰, 「大衆小說論」(六), 「東亞日報」, 1929.4.19.

위 글은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라는 소제목 밑에서 다른 것으로 제재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부분인데, 藏原惟人の “어떠한 예술을 대중 속으로 보내느냐” 하는 논의에서 발상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戀愛를 背景 내지는 中心骨子로 하고서 다른 사건을 많이 취급하라는 발언은 앞서 戀愛의 葛藤에 작용한 歷史的, 社會的, 物質的 諸條件의 暴露를 企圖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金基鎮은 이 글에서 제재와 그것의 처리방법에 대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한 논의는 회피하고 있다. 이는 그에 대한 반대파의 비판으로 그가 이론을 버리고 실제창작에 전념하게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의 논쟁들에서 드러난 그의 이론적 취약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다음에 오는 것으로는 순수한 문학적 논쟁에서는 벗어난 ‘붉은 戀愛論’이 있다. 우선 ‘붉은 戀愛論’을 중점적으로 언급한 이로는 陳尚珠를 들 수 있다. 陳尚珠는 「푸로레타리아 戀愛의 高調」(「三千里」, 1931. 7), 「붉은 戀愛의 주인공들」(「三千里」, 1931. 7) 등 수 차 글을 발표하고 있어 이 방면에 관심이 지대한 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그의 「맑스主義戀愛觀-戀愛의階級性問題-」(「朝鮮日報」, 1931. 7. 28)를 주로 살펴 보기로 한다.

無産階級은自初부터禁慾主義者가아니며戀愛를否定하는것은아니다.그러나無産階級에는특히 重大한階級的的使命이잇스며 階級的規律이있다. 이階級的規律만이 오직無産階級的의道德이다.

그것은 몬저무엇보다도階級全體의利益을爲하야는 無條件的으로犧牲的努力을다하게된다.個人的의전利益, 幸福, 享樂도이階級的全體利益앞에서는全部犧牲시킬것을要求한다. ... (中略) ...

그럼으로 우리無産階級에잇서서는戀愛그것도階級的立場으로부터成立되기를要求한다.

戀愛는絶對로階級的規律下에服從시키지안흐면안된다.

陳尚珠는 無産階級에게는 階級的 使命이 있으며,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犧牲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 한다. 물론 그가 戀愛의 必要性을 전적으로 否定하지는 않으며, 단지 戀愛의 階級性을 주장한다고는 했지만 이 양자중 택일을 요구했을 때에는, 연애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논리는 階級과 戀愛를 統一的으로 파악하지 못해 '階級的 義務'와 '個人的 感情'을 相互 對立的인 것으로 인식하는 誤謬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다소 원칙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원칙론에 충실하면서도 한편 그의 논의는 상당히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그에 따르면 '戀愛 그 物件도 現代資本主義社會下에서는 階級을 超越하여 存在할수가없다'고 한다. 일견 平等해 보이는 戀愛至上主義라는 것도 역시 '뿌르조이의物件'이라고 본다. '資本압제는 一切勞動이平等하게보임과如히 뿌르조이眼前에는 모-든女性은平等한것타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애 역시 다른 사회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계급적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는 資本主義社會는 여러 階級으로 갈려져 있으며, 각 개인 역시 자신이 속한 계급의 성격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각기 다르게 반응한다는 원리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萬若그가戀愛至上主義에만쫓치지안코 勞動者가되어勞動者의生活을한다면 그는前에屬한階級에서거나 勞動者階級の陳營에들어왔다고볼수있다. 자라그들戀愛는 발서뿌르조이의이아니고無産階級的의일것이다. 이렇타하야 그것은戀愛가階級을超越한것이아니고 그는 戀愛의 階級性이移動된것이다.

또그러면 「勞動者階級の男子女子가뿌르조이를 對象하여戀愛하는境遇에는……」……그는 뿌르조이化한것이며뿌르조이의戀愛에成功한 것이다.

이세에萬若에戀愛가成功되지못하고片戀에만쫓치다면 비록戀愛는뿌르조이의으로俱體化하지못하얏다할지언정 그들戀愛가 뿌르조이를對象으로하니만큼 뿌르조이「이데오로기」影響下에있는것은事實이다. 卽그들은階級的으로는 勞動階級이지만思想,感

情에는 부르조아의 影響을 多分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決코 그러타하여戀愛가階級을 超越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위의 논리는 계급적인 차원에서 연애를 보려고 한 시도인데, 얼핏 조리있어 보이는 이 논리는 순환론적인 모순을 보여준다. 즉, 위에서 陳尚珠는 階級意識의 移動을 염두에 두고 논하고 있는데,戀愛의 主體와 그의 階級意識上의 移動 곧, 結果論적으로 主體의 意識의 指向點에 대해 단순논리로 기술함으로써 논리의 모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戀愛의自由와平等’이 ‘封建的隸屬과傳統에 反抗하는限에잇서서’만 ‘急進的意義를 갖고있다’고 보아 부르조아戀愛의 意義를 限定的으로만 認定하고 있다. 즉, ‘부르조아社會에眞實한自由와平等이업는데’ 하물며戀愛에 限해서만 그런自由와平等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는 社會主義者들 사이에 유행했었던 콜론타이의 「三代的戀愛」에 근거한 프롤레타리아 연애론의 소부르조아근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은 사회주의의 열렬한 투사이면서도 부르조아와 난잡한 애정 행각을 벌인다. 그의 딸 역시 열렬한 투사이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난잡한 성관계를 즐기고 심지어 어머니의 애인과도 관계를 맺는다. 그는 혁명기 러시아에서 이러한 연애가 한때 실제로 유행한 적이 있었으나, 혁명적 성생활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계급적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 하여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陳尚珠는 부르조아戀愛의 계급적 성격과 프롤레타리아戀愛의 不健全性을 동시에 비판함으로써 양자의 부정적인 면모의 극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프롤레타리아 연애의 성립 가능성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同伴者 作家로 알려진 玄民 俞鎮午는 「푸로文學과戀愛」(『東光』, 1931. 12)와 「文學과戀愛」(『四海公論』, 1938. 8) 등戀愛論에 관한 글을 두 편 남기고 있다. 특히 전자는 日本의 德永直, 片岡鐵兵등의戀愛文學을 예로 들고 있어 명백히 당시 나프의 藝術大衆化 論爭에서 일어났던 創作動向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붉은戀愛'를 언급하면서 지면의 대부분을 建設期 露西亞의 프로문학에 나타난戀愛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라기 보다는 차라리 原論의 입장을 개진하는데 그치고 있다.

더구나 ××(建設一筆者註)前期에있는 나라의 프로文學에 있어서는 政治××(鬭爭一筆者註)의 促進, 展開가 가장 急先務가 되는이만치 純全한 個人問題에 그치는戀愛問題같은 것은 後景으로 몰려들어간다. 이것은戀愛問題, 男女關係의 問題가文學的 關心의 對象이 될수 없는 까닭이 아니라 그것이 于先 急하지 않은까닭이다. 그것보다도 于先解決해야할 問題가너무나 많기때문이다.

그러나 現下의 프로文學에 있어서도戀愛問題가 全然 等閑視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純全한 個人問題에 끝이지아니하고 나아가 運動의 全面에 어떠한 影響을 갖는다면 局限에 있어서 ××前期의 文學에서도戀愛問題를 取扱할 것이다.

……(中略)……

戀愛問題만을 當面의 問題로 삼는 것은 卽 政治××(鬭爭一筆者註)으로부터의 回避를 말한다.⁴⁴⁾

위의 내용이 그가 논한 프롤레타리아 연애관에 대한 전부이다. 여기서 그는戀愛問題를 순수히 개인문제로 치부함으로써 인간적 감정과 계급투쟁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는 이원적 태도를 보여준다.戀愛가 단지 개인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運動에 影響을 주는 조건일 때만 그를 다룰 수 있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앞서 논자들의 논리보다도 한층 더 退步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 글의 말미에서도 '小市民的 家庭生活의 幸福이 그대로 建設期の 露西亞의 黨員-勢力이 있고 따라서生活이 有餘한-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논의를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이로 부터 근 7년 후에 그가 발표한 「文學과戀愛」는 위와 같은 정도의階級的 觀點에서도 脫皮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44) 玄 民, 「프로文學과戀愛」, 「東光」, 1931.12, p.188.

여기서 그는 戀愛가 文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人間生活에서 가장根源的인意味를 갖고있기때문'이며, 연애는 '各時代와 民族과 世界觀과의 色다른옷을 입고 登場'⁴⁵⁾한다고 하여 戀愛觀의 폭넓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그의 이러한 立場變化는 동반자 작가로서 활동하다 轉向한 그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자들과는 달리 당시 프로문학 비평가로 활동한 閔丙微는 연애에 대해 철저히 敵對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는 「階級運動과 愛慾問題」(『批判』, 1932. 2)라는 글을 발표하여 붉은 戀愛를 擁護하는 玄東炎, 安德根과 한 판논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여기서도 논쟁은 문학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붉은 戀愛論'에 한정되고 있다.

그는 '뺨은 생을延長시키는本能的條件이요 愛慾은그副次的產物'이라 하고, 이를 同一하게 取扱하려는 이들을 '戀愛日和見主義者들'이라 매도한다. 그에게 있어 戀愛란 '鬭爭力을 抹殺시키고 陳腐 攪亂시키는' '階級運動에는 絶對의禁物'⁴⁶⁾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革命이 성공할 때까지 階級을 위해 그리고 鬭爭을 위해 이를 超越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계급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관되게 社會運動과 戀愛를 敵對視하고 있지만, 그러는 한편으로 이를 目的意識의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도를 볼 수 있어 흥미롭다.

그러타고 戀愛問題를 全혀否認한다는것은아니다×(閔一筆者註) 爭期에잇는即前衛x(全一筆者註) 線에잇는 우리는 ××(革命一筆者註)의 成功될세까지 犧牲하자는것이 다.

그리고 戰術과되치못할時期에잇어서는 戀愛나×(性一筆者註) 交도問題되지안는다 그것은階級運動을 爲하는것이넋간말이다.⁴⁷⁾

45) 玄 民, 「文學과 戀愛」, 『四海公論』, 1938.8, p.77.

46) 閔丙微, 「階級運動과 愛慾問題」, 『批判』, 1932.2, p.78.

47) 閔丙微, 上揭書, p.79.

위에서 볼 수 있는 바, 그는 革命的 完遂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戀愛를犧牲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런 眞實한 感情이 없이도戀愛나 性交도 할 수 있으며,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中國의 少女革命家 田少蘭의 '性的 亂交' 행위 마저도 정당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그가 의도하는戀愛는 진실한 감정과 생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이란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하나의 戰略的 手段에 不過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극히 기계적이고 비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하기 이전에 지극히 비인간적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글은 결국 安德根의 「맑시스트에게戀愛는 禁物인가」(『批判』, 1932, 4)와 玄東炎의 글「?」(『我等』, 1932, 4) 등에서 비계급적이란 批判을 받게 된다. 자료를 구득할 수 없어 정확한 내용을 추측하기는 어려우나 그 제목으로 보아 이들의 글은 '붉은戀愛'를 擁護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부득이하게 閔丙徵가 다시 이를 반박한 글인 「藝術時感」(『批判』, 1932, 7)을 통해서 알아 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그는 安이 '붉은戀愛만을위하여 맑스主義에다부르코쏘야學說을加하여그로써合理化하려고하였다'⁴⁸⁾고 하여 그의 비마르크스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좀 더 명확한 관점에서 비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安輝의 글은 '붉은戀愛'에 대해 어떤 완성된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면서도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時代의尖端을 官能的으로亂舞하는近代主義者와 時代의 最前線을 意志的으로先驅하는 無產階級人의 性行爲의 差異는 全히 薄弱한것이야닌가 그리고 우리들은 이相似한兩者의行動을 明白히區別하여考察한다. 우리들을 前者를 肯定하지만그리고後者中에 부치루루의含有物이있다고하더라도 그中에서 新戀愛觀及新性道德觀의萌芽를 주으려고한다. 이薄弱한差異가實로 重大한 差異인것이다. 왜그러냐하면 最初의 스타트에잇서서 이미現代主義者는 戀愛至上主義에이고 그것에관침에 지내지아니

48) 閔丙徵, 「藝術時感」, 「批判」, 1932. 7, p. 98.

하나 우리들끼에서서는 爲先 戀愛至上主義의 否定에出發하고있는가답이다.

이즉 過度期에있는우리들끼는 全部的으로 肯定할수있는 戀愛觀과性道德을 把握하고있지는안타 便宜와이즉我等에 多少殘在된 부치뿌루의意識에依하여 變態的 過渡的 矛盾에찬戀愛及性生活를持續하고있다.⁴⁹⁾

安輝는 프롤레타리아의 戀愛와 性問題를 지금까지와 같이 개인적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되고 階級的 諸問題와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조아의 영향하에 있음-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認定이 부르조아적 價値觀을 모두 긍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共產主義者는 '永久不滅의道德的眞理인것을認하는것이아니고 社會의各階級이 各各自身의行爲의規範을作上하여간다는假定으로써出發한다'고 하여 프롤레타리아의 倫理觀 定立을 낙관하고 있다. 安輝는 현실적인 문제를 비교적 온당하게 기술하고는 있으나 原論의인 水準을 確認하는 데 그치고 있다.

梁彈實의 글은 그 내용으로 보아 앞서 俞鎮午의 경우처럼 나프의 藝術大衆化論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에 의하면 나프 작가들은 애정소설을 통해 '複雜多岐한 現實의矛盾속에서 正當한戀愛觀의解明과 뿌르조아와 小뿌르조아지-의 腐敗한戀愛觀, 結婚觀의暴露에 非常한精力을 傾注'⁵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적인 작가들도 이러한 경향이 중요하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태도는 다소 추수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계급성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梁彈實이 진보적 작가와 작품으로 거론한 예의 면면을 볼 때, 소위 그 '진보적' 작가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는 작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내린 그의 관점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것은 양탄실의 논리 자체가 계급적으로 엄정성을 갖추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

49) 安輝, 「階級的 性道德」, 「全線」, 1933.1, pp.81-82.

50) 梁彈實, 「戀愛와 文學」, 「批判」, 1937.1, p.101.

로 보인다.

4. 韓國 프로문학과 '붉은戀愛論'의 實踐的 展開樣相

4.1 先驗的 當爲論과 機械的 公式主義

카프의 소설들은 目的意識의 高揚에 집착한 나머지 기계적 공식주의에 함몰되어 예술적 형상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붉은戀愛論'을 다룬 소설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작품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먼저 카프 최대의 작가로 일컬어지는 李箕永의 「邂逅」(「朝鮮之光」, 1927. 11)와 「彩色무지개」(「朝鮮之光」, 1928. 1)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 작품은 國內나 日本에서 藝術大衆化 論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社會運動과 愛情간의 關係 설정에 주목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 줄거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21살인 S는 XX여자 청년회 중앙집행위원이다. 그는 XX비밀 출판물 사건으로 S감옥에서 복역 후, 지금 출감하는 B를 동지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17살이던 4년 전 가을 XX소작쟁의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XX총동맹특파원으로 내려와서 연설하던 B의 모습에서 감화를 받았다. 그후 그녀는 아비를 잃고 부유한 순사에게 시집가라는 어미의 강권을 받자 B에게 연애편지를 보낸다. 하지만, 그의 거절에 모욕을 느낀 그녀는 3년전에 상경해서 카페의 여급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은다. 그녀는 나중에 어미를 불러 하숙을 치게 하고 자신은 XX여자 청년회에 입회하여 공부를 한다. 그 결과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그녀는 이를 회상하면서 B를 찾아가 당시의 일들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그녀가 당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자 B 자신도 역시 그러한 감정을 느꼈노라고 실토한다. 여기서 B가 오히려 자신의 예전 감정을 얘기하려는 감상적인 모습을 보이나, 이번에는 오히려 그녀의 확고한 태도에 눌러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만다. 여기서 S를 당황케 한 B의 당시 답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S씨! 당신은 참으로 나를사랑하십니까?네?그러다면 나는 당신을 감사합니다!그러나S씨 다시한번 눈압해현실을구해보십시오! 지금우리의환경이서로사랑할수있는처지인 닛가? ……우리는 모름직이 감정의충동을죽이고 리지의촉불을켜서 우리의압길을밝힙시다! 우리는 배타자파선하는 위험한 항해는하지맙시다! S씨! S씨가 참으로나를사랑하시거든 당신은 당신의압길을예비하십시오! 지금우리들은 더구나 안스가의행복만을구할 세가안닌가?합니다. (p. 119)

여기서 B가 사랑 그 자체를 전적으로 否定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지 객관적 상황이 자신들의 사랑을 허용할 수 있을 만큼 평온하지 못하므로 그때까지 留保하자는 것이다. 그는 戀愛와 生活을 分離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입장이지만, 戀愛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기계적인 태도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의식은 출감을 한 지금은 많이 바뀐 상태다. 아니, 자신도 고백했듯이 자신도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속으로 억눌렀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지금에 와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역으로 S는 훨씬 강경하고 교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자도 먹어야살겠지요!」

「그러나 그의먹는것이 ××××(부르조아?, 필자주)와갓튼 형략적은안이겠지요! 그는먹기위하여 살것이안이라 장래의 참으로 살기위하여 먹을것이안일까요?그인간이 의식있는인간이랄것갓트면 말씀이여요! 자기해방을위하여 먹지안으면 안될새에만 먹겠지요. 아- 내가카페에 잇슬세거과에 밤낮으로 드나드는 남자들이 녀자를 엇더케생각하는지?나는인제 남자들의 마음을 잘알고잇서요.더구나 사회에나서서 「녀자해방」을 부르짖는다는년이 남자의 미지근한품속을 썬나지못한다면 그야말로 오쟁이안에서 살포질하는 수작이안일가요?」(p. 125)

예전 無自覺한 일개 시골 處女였던 시절과 비교한다면 그와는 비교도 안되게

운동의 指導的 人物로 成長한 S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당연시할 수 있을 성질의 것이다. 하지만, S의 말이 자못 감동적 어조를 띄고 있긴 해도, 소위 한 단체의 중앙집행위원이라는 그녀의 위치를 고려할 때 그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 분명치도 않고 핵심을 잡기도 어렵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그녀는 無產者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기 위해' 먹는 것이고 解放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라 설명한다. 곧 그녀가 한 이 말은 단지 '향락적인 삶'만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이는 곧 '생존을 위해 먹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이를 증명키위해 자신이 경험한 술집남자들의 사고를 제시하고 이를 다시 남자 일반으로 확대시킨다. S는 자신의 경험과 이를 개념적으로 범주화함에 있어서 혼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이 일했던 카페에 드나드는 남자들이 모두 같은 계급.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일 수는 없으며, 그들이 모든 남자를 대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이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무산계급의 남자들과 동일시될 수는 더 더욱 없을 것이다.

또한, 그가 女性解放을 男子들과는 敵對的인 것으로 생각하는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성해방이란 억압되고 왜곡된 여성의 위치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자는 것이지, 그것이 여성고유의 아름다움을 버린다면, 인간적인 감정 자체를 무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S가 연애를 남녀간의 진실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놀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말이 낫스니말이지 소위내가당한사건도 그러케××(해석?. 필자 주) 될것이안
됩니다.-그것도 역시XX(동지?. 필자주)중의좀미덥지못한한사람의 부주의로 그러케되지
안엇겠습닛가?」

「참 그세 신문에낫든것을 차져보닛가 그러터구먼요! 그런데도 그의실수한동기는
엇든녀자와련애에 열중하든세문이라고요?~」

「그러기에 누구는 이러말을하엿습니다.××××과 련애운동은 수화와갓튼 상극이라

「그러면 ×××는 평생에 연애도 못해보게요?」

「그러기에 그들은대개 그전에 연애를했거나 그러치않으면 못해보기도 했겠지요!」

(p. 127)

여기서 두 사람 사이의 對話는 주로 戀愛의 害惡을 지적하는 것으로 一貫하고 있다. B는 자신의 投獄이 同志의 戀愛와 그로 기인한 失手에 의한 것이었고, 그래서 다른 동지들은 階級運動과 戀愛는 물·불과 같은 相剋으로 본다는 것이다. 운동가에게 있어서 연애는 운동을 하기 전에 미리 마쳐야 할 것이거나 아예 근처에도 가지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戀愛는 감정적인 유희의 차원정도를 지나 運動에 害惡을 끼치는 존재로 정의된다. 두 사람은 이러한 결론으로서 끝맺고 헤어진다.

전체적으로 「邂逅」는 두 남녀의 만남을 통해 階級運動의 辯證法的인 發展課程을 묘사하려는 동시에 戀愛와 階級運動의 相關關係를 解明해 보려는 의도를 가진 작품으로 보인다. 이는 무자각한 한 시골처녀가 한운동가와의 만남을 통해 처음의 무자각한 상태를 탈피하고 운동가로 변신하며, 그리고 그녀가 다시 운동가에게 감화를 주는 과정 및 두 사람의 감정관계를 살펴 보면 잘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가끔씩 드러나는 '만록총중의 일점홍'과 같은 古典小說의인 描寫의 흔적들⁵¹⁾과 敍述者의 過度한 작품내 直接的 介入⁵²⁾으로 인해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품구성면에서는 연애와 운동을 선·후차원의

51) 예를 들면 '만록총중의 일점홍이방불하였다.', '전장에나가는 무사처럼', '제단에오르는 양과가치', '만단비희가 끊이치이러났다', '저녀여울에 뛰노는 물고기처럼', '군량', '장너무갓터 뽕뽕하고', '만지장사를하고', '임의흐른물이요 허터진구름이지요', '수화와갓튼 상극' 등등의 표현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李箕永이 어린 시절 古典小說의 筆寫 및 朗讀으로 古典小說을 거의 섭렵했고, 또 동리사람들에게 新小說을 읽어주고 그것을 創作하기도 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조. 박대호, 「농부 정도룡」 구조분석, 김윤식, 정호웅편, 「한국 리얼리즘 소설연구」, 탑출판사, 1987, pp.95-96.

문제로 분리시켜 다름으로써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점은 이 작품이 '심각한 시련을 겪지 않고 가능한 상황을 상상해서 쓴 느슨한 작품'⁵³⁾이라는 부정적 지적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이 작품의 문제는 연애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적확하게 결합해내지 못했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경향소설이 연애를 다룬 것이 문제가 된다는 식의 지적은 전혀 온당치 못하다 하겠다.

「邂逅」는 이상과 같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인 소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주인공들의 현재적 감정에도 여운이 남아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데서 그러하다. S가 B를 찾아가 때 'S는 마치신랑압해스는 신부와갓치 공연히북그러운생각에 귀밧을붙히엇다'(p. 122)라는 대목이나 마지막에 B가 S를 배웅하고 돌아온 뒤의 그의 심리에 대한 묘사-예를 들면 'B는그를대문밖까지 바리주고 방으로도라와 다시자리 에누엇슬새 그의 가슴은 별안간 행-하니 마치 동혈(洞穴) 속갓치 텅-비인것을늦기엇다……'(p. 128)-는 앞으로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彩色무지개」는 부르조아 청년과 가난한 소작농의 딸간의 연애를 다루고 있다. 작년봄에 ××쟁의로 구축된 김선달의 딸 옥숙이는 노동야학에 다니고 있다. 그녀는 정진사의 아들로서 일본 유학생인 형조와 사랑하는 사이이다. 형조는 그녀의 오라비인 경식의 어릴적 친구이자 노동야학의 교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식은 형조를 야학선생으로 쓴 일이며 동생이 그와 사귀는 것 등을 못마땅해 하는데, 그것은 형조가 부르조아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라비의 닥달을 받고 형조에게 공

그리고 더불어 趙明熙, 宋影웅의 경우도 李箕永와 같은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카프의 주요작가들이 傳統的인 小說樣式에 자신의 文學的인 基盤을 두고 있어 現代 小說이 日本을 仲介地로 한 西歐文學의 壓倒的인 影響下에서 形成되었다는 견해는 앞으로 좀 더 檢證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참조. 拙稿, 「現代小說과 勞動移民」, 二靜 鄭然 榮先生 回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國語國文學論叢」 2, 塔出版社, 1989, p. 466의 註 41), 42)

52) 이는 p. 121에서 '독자제군! 고통은 다갓튼고통이라하지마라!……' 등과 같이 서술자가 문면에 나서서 작품을 해설하고 있다.

5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8, P. 441.

「그야그러치마는……옥숙씨! 그것만은……아-그것만은-나는보증할수가업습니다! 그것은 사상(思想) 이외다! 사람의사상을엇더케금시로 새옷가러입듯 할수잇셧습니까?」

「왜못해요! 지금내압해서맹세하지요! ……지금부터……지금당……」

××××××××되겟다고! 그래못해? 응」……(中略)……

「그것은 못하는게안이라 안하는게지요! 나의사상이 그러케먹이지지안으니까 하기실 탄말이지요」……(中略)……

「그러면……그러면 고단두시구려!」 하자옥숙이는 별안간 손을뿌리친다.

「당신말맛다나 당신은서쪽으로 나는동쪽으로……그러면당신혼저 잘사시유!」

……(中略)……

「고만뒤요 당신은 당신생각만하거나 나는내생각만하거나 피차일반인데 무얼! 인제보 니까 당신은한울에걸넌 채색무지개.나는 그것을쳐다보는 썩에슨사람이구려! 당신은참 으로 ×××아! (부르조아?, 필자주)」

하자 옥숙이는 발색이러스더니 땡창땡창뛰여간다. (p. 23)

옥숙은 형조에게 社會主義者가 될 것을 강권하지만, 그것이 왜 옳고 무엇때문에 자신들이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지를 확연하게 '아러낼지식'도 없고 그것을 설득할 능력도 없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밀천은 단지 '암만해도 옴바의말이 올흔것'은 막연한 믿음이다. 그에 반해 형조의 태도는 오히려 論理的이다. 이는 야학의 학생과 동경 유학생출신의 야학교사간의 차이이기도 할 것이다. 思想이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자신의 主體的인 判斷에 의해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옥숙은 형조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絶交를 선언한다. 여기서, 단지 사상이 다르고 그 사상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단숨에 연인과의 사랑을 포기하고 그 사랑을 후회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같은 주제를 다룬 「邂逅」에 비해 時期的으로 뒤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硬直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彩色무지개」는 전

자와 같이 敘述者의 露骨의인 介入은 사라졌지만, 연애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機械的이다. 전자의 경우 애정과 사회운동을 분리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다소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 작품은 부르조아를 戀愛를 통해 무산계급으로 牽引코자 시도하지만 인간적인 감정을 도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邂逅」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작품이 되고 말았다.

嚴興燮의 「地獄脱出」(『大衆公論』, 1930. 7)은 한 여성이 부르조아 남편에게 벗어나 사회운동에 투신한 남자와 사랑을 하면서 인간적인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줄거리를 그리고 있다.

小作人의 딸 영순은 財産家의 아들 경식과 연애에 빠져 결혼한다. 원래 그녀는 3년 전 학교맹휴사건으로 퇴학당한 성호와 사랑하던 사이다. 성호와 작별한 후 경식과 연애에 빠진 그녀는 졸업 직후에 결혼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무의미한 부르조아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성호를 그리게 된다. 남편과 외출한 날 자신들이 탄 택시의 기사가 성호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고민끝에 그에게 편지를 부친다. 경식은 날이 갈수록 저급한 부르조아의 행색을 드러낸다. 두 번의 편지끝에 성호를 찾아나선 영순은 그가 부상당한 사실을 알고 문안을 간다. 거기서 영순은 전날 밤 남편과의 싸움 끝에 완전히 결별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와 함께 살기로 한다. 그후 부상이 나은 성호는 서울 시내버스와 택시의 총파업을 일으켜 승리한다. 그녀는 성호의 택시조수로 일하며 프롤레타리아의 금지와 함께 그의 아내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이 작품에서 無産階級 出身인 영순이 남편에게서 느끼는 부르조아의 低級함으로 인한 幻滅感은 漠然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혼생활의 분홍색행복-물갠흔사랑의것히저가는맛은 경식과 영순이 다가치느겨야할 것이였만은 영순은 필연적으로 경식과의 무의미한 물으조아생활에 권태를 늦기지안을 수업섯다.

그러는동시에 옛날의 성호가 그의가슴속에서 새로나타났섯다. 성호를 맞나봣스면!

십흔어렵듯한생각이 절망에갓가운한줄괴의회망에빚을던져주었다.

그러던요지음의 그의게 별안간나타난 성호! 그는뛰여가서 강렬한키쓰하고십혔다.
(pp. 147-148)

영순이 남편에게 환멸을 느끼는 이유들이 부분부분 자세히 서술되어 있긴 하지만, 설득력을 주기는 힘들 정도로 묘사되고 있다. 단순히 부르조아생활이 무의미하고 권태로울 뿐, 왜 부르조아 생활이 무의미하고 권태로운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리고 영순은 단지 그 무의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옛날 애인인 성호를 그리워하고 그러다 정말로 성호를 만나자 '뛰여가서 강렬한키쓰'를 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행동은 권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치고는 지나친 것이다. 또 영순은 성호의 근무지를 찾아 편지를 부치고 그를 다시 사랑하기로 마음먹는다. 여기에는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인 영순의 남편과의 階級的인 문제에 대한 自覺, 그리고 남편과의 싸움으로 인한 離別의 결심이라는 '論理的' 理由가 붙어 있긴 하지만, 事件의 必然的인 展開라는 측면에서 보면 論理的인 說得力이 不足하다. 즉, 이러한 關係들의 因果性이 自然스럽게 行爲들 속에서 導出되지 못함으로써 弱點을 갖는다. 이것은 계급간의 대립을 묘사해야한다는 관념이 작품의 전개를 앞지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대립을 도식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은 이 작품의 도처에서 잘 찾을 수 있다.

쫄조아 남녀들은 짝을지여 봄과녀름을 이러케 향락히는반면에 웃둑웃은굴둑 식거먼 연괴 그속에서 문지와 기름내암새에어린 수백만의 로동자는 날마다 날마다 십장이타고 피스방울이 달너드러갈분이다. (p. 148)

이 작품은 계급적 관점에서 인물을 그린다는 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인물들의 계급적 모습을 전형화해서 그리지 못하고 유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태도는 작품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는 앞서 지적한 논리적인 구성의 취약함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작품의 미적 특질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프롤레타리아 戀愛論에 대해 비교적 正確한 理解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영순은 그의옴바가 늘자귀에게들어주든 말을쫓쫓이이지리에서 깨달게되였다.

「나는 결혼함으로써 안락과 행복을구하여서는못쓴다.우리들에게있서 결혼이란것은 오죽 동지와 동지의 악수가안이면안된다 너를지극히 사랑할사람은 네가속(屬)한 푸로레타리아다. 새××를건설하기위한 전위XX인 푸로레타리아다너는 이런용감한사나히의 사랑을벗어야할것이며 주어야 할것이다……(中略)」(p. 151)

즉, 無産階級の 戀愛란 同志的 結合에 基礎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연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무산계급의 연애란 자신들의 안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다는 더 큰 계급투쟁에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정확한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부르조아도 無産階級이 戀愛를 통해 자신과 같은 무산계급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위와 같은 관점은 부르조아가 프롤레타리아와 理想的 同質性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出身階級の 性格때문에 배척을 받게 될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당대 社會主義의 始作이 이러한 부르조아 出身의 知識人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이후도 프롤레타리아 出身들에 빠지지 않게 社會運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주지하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 작품은 프롤레타리아의 戀愛論에 대한 정당한 옹호라는 점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작품들에 비해 일정 정도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 구성 및 논리의 부족함, 유형성 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4.2. 現實認定論과 問題的 人物

이 절에서는 李北鳴의 「現代의 序曲」과 함께 宋影의 작품을 주로 다루기로 한다. 특히 宋影의 작품이 주가 될 것인데, 그의 작품은 階級競爭과 함께 愛情모티브가 根幹을 이룬다. 그가 문학사적인 비판을 받는 것도 바로 애정문제 때문이다. 그는 연애지상주의보다는 '붉은戀愛'를 主張하고 있어 본고가 의도하는 바의 문제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⁵⁴⁾ 우선 李北鳴의 작품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李北鳴의 「現代의 序曲」(「新朝鮮」, 1936. 1)은 원래 三部作 長篇의 첫편으로 발표된 작품인데, 공장에 僞裝就業하는 인텔리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이 작품은 '의도적으로 준비된 勞動運動의 한 국면'⁵⁵⁾을 그리는 동시에 이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서 주인공의 戀愛를 다루고 있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X은행 지배인의 아들 한필수는 실업가의 딸 윤미란과 사랑하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는 수재이던 전문학교 동창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한다. 그는 동지의 소개를 받아 경원선을 타고 공장지대로 간다. 거기서 그는 막노동을 하면서 무식한 노동자행세를 해서 공장에 노동자로 취직하는 데 성공한다.

필수는 운동에 투신 후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상념에 자주 잠기곤 한다. 동지의 소개로 떠나기 전에 미란의 편지를 받은 그는 과거의 생활에 대한 기억에 빠져든다.

필수는 그편지를 찢어버리라고하다가 꾸기여서 스룻취양복포켓에넣었다.

그러나 필수는 그렇게바웃고 미웁게생각하면서도 머리한편구석에서는 역시지나 간날 의미란이와의 사이에 미련이남어있었다.

필수는 그순간자기가지금하고 있는일도 다이져버리고 미란의생각을 하였다.

54) 박대호, 「宋影 문학의 구조적 특성」, 김운석외편, 「한국 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8., pp.244-245.

55) 조동일, 전거서, pp.439-440

필수가 이런생각 저런생각에 잠겨있다가 「펜」을드러 미란에게 회답을쓰라고 하였을 때다.

.....

필수는이X령을받고 자기가하든 망상에서 놀나깨였다. 그리고 자기한것이너무나 어럽애작난 이었다는것을 깨달을때.....(p. 85)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바웃음을 보내면서도 거기에서 완전히 탈피해 있지를 못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그가 인텔리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막노동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계속된다.

합격자를 발표할동안 필수는나홀동안이나 「X구미」에 나가서일하였다.

일을하다가 문득미란의 생각이나서멍하니 서울쪽을 쳐다보기도했다.그럴세에 필수는 아조센치멘탈한 감정의지배를 받는것이였다.그러다가는 또쌈씩놀나서 자기의연약한 마음에다가 진리의채죽질을 하는것이였다.(p. 98)

위와 같은 필수의 태도는 지극히 正常的인 것이다. 그는 이미 성장한 한 사람의 사회주의 운동가는 아니다. 이제 막 인텔리의 틀을 벗어나 勞働者로서 시작한, 새로 자신의 意識을 改造해 나가는 過程에 있는 人物일 뿐이다. 그러한 그에게 있어 자신의 意識의인 武裝과 그에 반대하는 以前까지의 意識의 충돌작용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이후는 작품이 발표되지 않아서 논의를 할 수 없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인물의 운동에 대한 감정과 심리적인 갈등의 충돌을 상당히 잘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宋影의 「우리들의 사랑」(「朝鮮之光」, 1929. 1)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줄거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동경의 솜 공장에서 일하는 영노는 어느 날 엿장수가 되어 자신을 찾아 온 애인

용희를 만난다. 그들은 영노의 친구인 용희오빠의 소개로 만나 장래를 약속했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인정했던 사이이다. 그러던 중 영노는 XX회 사건을 치르고 출감 후 용희를 찾아가나 황해도로 시집갔다는 전갈을 받는다. 낙담한 영노는 동지들 마저 흩어진 후라 동경으로 떠나가 일년을 보낸다. 용희는 아버가 정한 결혼을 반대하다 결국은 가출, 여러 곳으로 피신하던 중 먼 일가 아저씨를 만나 그의 소개로 일본으로 오지만, 그가 자신의 월급 10달치를 받아 챙기고 도망간 것을 알게 된다. 영노는 용희를 데려 오고자 하나, 나중에는 그녀를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자 노동조합일, 다가오는 메이데이행사도 제쳐둔 채 고민한다. 그러던 중 용희의 편지를 받고 영노는 다시 기운을 차린다.

여기서 이들의 사랑은 우선 階級的인 自覺에서 始作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찌감치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자각을 한 탓도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다진다.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은 흔들린다. 이것은 자신들의 意志의 薄弱함때문이라기보다는 外의인 狀況때문이다.

그뒤에 소식들으니까 안년째아니라 황해도가기는짓는데 한다하게식집을갓다고그란다.

이래서 영노는아조밋친듯이 되엿섯다.그래서 「녀자는녀자다」라고까지 흥분이되엿다. 더욱이 그세는 모든동지들이 새벽별모양으로헤어지고 서울은 비여다십히되엿슬새이다.

여기서 영노는 서울을떠나가고싶혔다.

이래서 이동경으로흘너왔다……

……지금까지 일년된지금까지 언제나 용희가 생각나지안엇든게아니다.그럴새마다 가슴을쥐어뜯고 울엿다.그리고 「온나 싸흠이다 연애할자격이엿다」라고불으지갓다.그래서 날마다 동경의퍼져잇는동지를차저다니며 수군거리는것으로 큰위안을삼이왔다.다시

말하면 그의 전부는 그곳으로 ???만히는 핫김의한편원인이 이용희와 헤어진것이 되었섯단말이다. (p. 165)

영노가 東京에서 階級運動에 더욱 몰두하게 된 理由는 얼핏 보기에는 용희와의 헤어짐, 그리고 동지들의 흠어짐으로 인한 喪失感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愛人인 용희때문에 그가 일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본다면 영노는 韓雪野가 지적한 바, ‘愛人새문에昏昏하다가 또그새문에活氣를떠 윗다가 그를救하기에골몰하다가 結局逃亡질이라도치라는’⁵⁶⁾ 사람으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의 方向性 喪失은 단지 용희라는 애인을 잃었다는 사실 그 자체때문만은 아니고, 그와의 同志의인 結合이 부쉬진 데서 오는 喪失感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점은 과거 국내에서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들은 장가가고 식집가는것이 서로부터서 살려고만하는것이아니라 서로부터서일을 하려는것이랍니다.」

「예구 그러치만 나는 배혼것이잇서야쥬.」

「허허 하필 XX의부인가치 지도나그려야하나요 남편이 XX가면 밥이라도 여서갓다주면 그만이쥬.」이러면서 두남녀는 장차 닥쳐올 거룩한 그러나비참한전도를눈앞해그리면서 몹시쓸쓸스런것을 못이기여서 마조열사안었다. (p. 170)

이들의 사랑이 위와 같이 남녀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동지적 결합에 기초하고 있음은 결말부에서 증명되고 있다. 영노는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빠진 용희를 어떻게 하지 못해 좌절하고 운동에도 열의가 식지만, 용희가 보낸 편지를 읽고 다시 기운을 회복하게 된다.

56) 韓雪野, 「新春創作評」, 『朝鮮之光』, 1992.2. p.107.

저는 돈백원에 단당이잡힌 인조괴계이기때문에서사람으로써의 자유가압습니다.여러번 가려고 하였으나 이곳에서는 절대로 출립을금하오며 더군다나 저를차저오는사람까지 의심을해서 면회를거절하나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매-데-는갓가워서웁니다 이곳 우리들의모스런녀자작공조합에서도 참가하게될것입니다.그날이나맞나되웁지요.침을베틀수도업시 정하게쓰러는 일바꼭 공원으로 우리들의행렬이 지내갈때에는 다만 「동경녀자작공조합태도정지부」라는 기만차저 보십시오.반드시 그그아래에는 재가 잇슬것입니다. ……용 회…

읽고난고는 오랫동안병실에가드러누엇다가 새로히해가도든 개인이춤날로 나온듯히나 싹했다.

모든것은 다 해결이되엇다.아조 무섭게 흥분이 되여서 악을 썼다. (p. 174)

여기서 해결이 되었다는 것은 物理的인 解決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영노는 國內에서 용희 때문에 挫折을 겪고 渡日하지만, 이는 비단 용희때문만이 아니라 客觀的 政勢의 惡化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영노는 다시 용희를 만나고 다시 좌절한다. 하지만, 용희가 愛人이자 同志로서 영노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영노는 다시 일어선다. 여기서 이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에만 머무르지 않고 同志의 結合이라는 한 次元 높은 段階로 擴張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사랑을 抽象化 내지는 偶像化해서 描寫를 거기에 充實하도록 맞추었기 때문에 '觀念論의 존탕'에 빠지고 말았으며, 「現代의勞動相이조금도드러나지를 안았다」라는 지적을 받았다.⁵⁷⁾ 張慶鐸도 이 작품을 들어 노동자 문학계열에 속하면서도 실제로는 내향적인 갈등과 삶의 기구함을 주로 다루어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이 삶의 일상사에 그쳐버린 흠이 있고 소설전개를 반전시키거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할만한 주사건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⁵⁸⁾ 이러한 事件의 不在

57) 韓雲野, 上揭論文, p.107

58) 張慶鐸, 「宋影소설의 인물유형과 구성적 특징」, 「成大文學」第26輯,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8. pp.195-196

내지 內向化에 대한 批判은 이 작품이 勞動文學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한 데서 온 결과로 보인다. 사건들의 연결과 전개가 취약하다는 비판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勞動文學이기때문에 勞動現場을 많이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발상은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구체적인 인간의 형상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프로 문학에서 目的意識性을 強調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된다. 하지만, 이를 배타적으로 주장할 경우 프로 문학에서 '붉은戀愛'란 主題는 성립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과 연관해서 이 작품이 藝術大衆化論을 實踐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섯해 동안의 조각편지」(『朝鮮之光』, 1929. 2)는 운동가 寒泉이 滿洲에서 서울의 동지들에게 보낸 두 편의 書信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書簡體 小說이다.

‘나’ 한천은 두 해 전에 원대한 이상을 품고 만주로 떠나와 세탁직공이 되었다. 그는 목사의 딸로 기독교 신자인 애인 신애시더와 눈물의 작별을 했다. 그녀는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후원했다. 그는 그녀를 떠나오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했으나 애인이 예술가이며 재산가인 권구성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술과 마작과 섹스로 나날을 보낸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실정을 동무들에게 전하면서 자신의 장례나 치러달라고 한다. 하지만, 2년 후의 편지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찾았음을 고백한다.

세탁소에서 쫓겨나 지나 쿠리(苦力)들과 함께 인력거꾼생활을 하던 그는 돈만 생기면 그들과 함께 매춘부를 찾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어있는 매춘부인 진보패를 만나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상 사건에 연루된 오빠의 투옥으로 자신을 찾아 온 보패와 살림을 차린다. 그후 그들은 교외에서 애를 낳고 학교의 선생으로 일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寒泉 역시 愛人인 신애시더의 變心으로 방향을 잃고 헤맨다. 그는 자신과 다른 환경에 속하면서도 자신을 격려하던 그녀가 변심하자, 운동

의 방향성은 커녕 運動 자체를 拋棄하고 술, 노름, 매춘이라는 타락에 빠져 버린다. 그러던 그가 정작 賣春婦인 진보패를 만나고서는 다시 운동에 대해 몰두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그는 과거 자신의 '리상주의', '영웅주의'를 비판한다.

엇지말하면 나는 영웅적야심으로 미래를개척하려고하였섯다네

전장이라하면 「사령관」만의 활약으로알었섯다네 외동대리적은병정병정의모힘을
나는 물느고있섯다네 (p. 125)

진보패를 만난 한천은 '재조잇고 희망이잇고 더군다나 「일國」이될소질을가진' (p. 123) 운동가로서 자타의 공인을 받던 자신이 한갓 小英雄主義者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자부심은 자신에 대한 자타의 공인 뿐만 아니라 '웃입은모양이든지 신식말느는데 뒤셔러리지안는' (p. 121) 출중한 新女性인 신애시더를 愛人으로 둔 사실에서도 말미암은 바 클 것이다. 敵對인 부르조아 계급의, 그것도 뛰어난 여성이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워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심리는 그가 소영웅주의적, 소부르조아적 근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 된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감정 이전에 그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신애시더에 대한 한천의 감정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계급간의 차이라기 보다는 진실한 감정에 기초하지 않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던 그가 그녀와는 정반대로 '얼굴이 싹싹하고 울통불통'하며 賣春婦이기 조차한 진보패를 만나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매춘부이면서도 '공맹의도덕설을 통째'하고 '축첩제도', '군벌들의 행동', '여성운동' 등에 대단한 식견을 보여준다.

다시말하면 「사랑」이란것은 그림자짜지라도 내몸에서는써나버렸섯다네

× × ×

그러나 이보패압해서는 그만 다시 아조 김히집히잡지는 사랑의 뜨건불이 훨훨이러낫

그래서 나도 아조 진심으로 죄-다 나의모든것을 저에게 고백하였섯다네
 이래서 저도 마음이 감동되었든것이잇섯다네 그세부터는 「일」을 위한다는것이 「사
 랑」을위함인지 「사랑」을하러는것이 「일」을위한까닭인지 이주영문을몰랐섯네(p. 131)

매춘부 진보패와 만남으로써 한천은 사랑과 일이 두 가지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
 의 통일된 삶을 체험하게 된다. 즉, 신애시더와의 가식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진실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계급적으로도 새롭게 자신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소영웅주의와 소부르조아적인 의식에 침윤되어 있던 주인공 한천이 거듭나는
 과정이다. 韓雪野는 이 작품이 ‘事象의 核心을 잡지 못한 空想의 私生兒’라 하는
 데 그 이유로 주인공인 한천의 행동에 매번 필연성이 부족하여 ‘그저 아는것 들은
 것을 片片히羅列한듯한感’이 있으며 그런 결과 ‘生活의 具體的形相이表明되지안
 았’으며 ‘一定한力線이具現되지’안았다는 점을 오류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작자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탓에 초래된 결과라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지적
 은 수긍할 만한 것이다. 타락한 한천이 밑바닥 인생인 진보패와 단지 만나기만
 함으로써 자신의 타락을 각성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논리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弱點은 이 작품이 書簡體 小說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

하지만, 그가 이 작품이 설정한 「사랑」과 「일」의 관계가 ‘觀念의致命的中毒을
 反證’한다고 한 지적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의 말처럼 ‘사랑은 썬「이데올로
 기」를刺戟할 수는잇스나 決定하는것은아니’⁶⁰⁾ 라는 것은 분명하다. 주인공 한천은
 처음부터 자신의 理念을 定立하고 있는 인물이다. 단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方向性を 喪失했을 뿐인 것이다. 진보패와의 만남은 한천이 그러한 방향성의 상실
 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韓雪

59) 韓雪野, 「二月創作評及其他」, 「朝鮮之光」, 1929.4., p. 107-108.

60) 韓雪野, 上揭論文, p.108.

野의 지적은 근본적으로 타당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사랑과 일은 同志의으로 結合되어 굳이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애초에 두 사람의 사랑은 人間的,階級的 信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石炭속에 夫婦들」(「朝鮮之光」, 1928. 5)은 아내를 의심하는 在日勞動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A와 B는 두 해전에 동경으로 건너와 한 가스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A는 원래 결혼은 '젊은이의 사형장'이고 '구속'이라고 믿던 사람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관념은 변화한다. 그는 같은 사상을 지닌 '신여성'을 반려자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생리적 변화가 오자 나중에는 결혼은 꼭 필요하고 대상은 여자가기만 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데까지 가게 된다. 그러다 그는 무식하지만 이해심 많은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객관적 정세의 악화로 동경으로 건너온 그는 아내 및 친구 B와 함께 살게 된다. 생활고로 인해 그는 아내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다툰 그는 아내의 역성을 드는 B를 의심하고 이 때문에 B는 자신이 숨기고 있던 애인(실제는 아내)을 그들 내외에게 선보이게 된다. 며칠 후 회의에서 그들은 검속당하게 되나, 아내들은 그들을 격려한다. 이 작품에서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인공의 아내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이다. 이로 인해 그는 친구와 싸우기까지 한다.

「그럼 말하려나 나는 자네의 안해가 펴 조타고 보네」

「아니 무엇이조탄말인가? 얼골말인가 몸맵시말인가 난 사실이지 얼골이나 몸맵시를 가지고내쳐를비란하는것이아닐세」

「홍 누가 그걸모르나 자네싼은 사상이틀닌다는말이지」

「그것이야 말할필요가잇나」하면서 점눈치면서

「오라 자네의속도알았네 자네는 나의쳐가 내게대해서 충실XXX노릇을 잘해주는것만에 감복을한모양일세!」

B도그제야신이나서

「사실일세 자네의안악으로말하면 이모것도모르시는 농촌의처녀로게시다가 자네만및 고 이것든 외국에와서 더욱히노동자의세민궁생활을하시는 그것만봐와도 감복할노릇이 아닌가?보통너자갓해보게 제일첫째 이곳으로 초차올것인가 그리고 아모리 우리들은 운동째문이라고 하더라도 자네가 안해대접다운대접을하여주었나 결혼이라고한뒤에 이제까지 아마 한사오년되지안나 뭇편안하게한번이나 해드리었나 뭇든지양편을다생각하여야지 자네 생각만해서야쓰나」(pp. 110-111)

B의 말처럼 A는 아내를 ‘감격한 동모’ 내지는 ‘귀여운 방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에 와서는 ‘귀여운 방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 A의 아내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남편의 운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남편이 운동과 가정생활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해내고 방황하자 양자택일을 권한다. 한편, A는 아내가 자기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품게 된다. 여기서 A를 달래는 B의 태도는 운동가로서는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 아내는 사상적인 측면의 지원도 중요하나, 진정으로 남편을 지원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도 대단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친구에게 반발하고 있는 A도 실상은 아내를 못마땅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한 아내의 태도때문에 고마움과 미안함등이 뒤섞인 감정을 품게 된 것이다.

이 작품은 송영의 앞서의 작품들과는 달리 부부간의 애정문제와 그것의 중요성을 제국적 관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작품은 갈등부분은 어느 정도 형상화하고 있지만, 그것의 해결은 단순하게 처리함으로써 미숙함을 보여준다. 이는 이 작품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尹基鼎의 경우 이를 ‘確實히 力作’⁶¹⁾이라 평가하는 반면, 조동일이나 張慶鐸, 韓雪野의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동일은 노동운동을 다룬 소설들이 단지 ‘노동현장의 묘사에 그쳤’고, 미숙해서 독자나 노동자에게나 모두 읽을 가치를 주지

61) 尹基鼎, 「文藝時評」, 「朝鮮之光」, 1928.11.12. p. 75.

못한다고 비판했다.⁶²⁾ 이러한 그의 관점은 앞서 「邂逅」의 비판에서 그가 보인 태도와도 일치한다. 조동일 역시 勞動文學은 勞動現場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카프 시기의 韓雪野의 비판과 그대로 통하는 것인데, 張慶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작품에서 '사건이 삶의 일상사에 그쳐 버린 점, 소설전개를 반전시키거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할 만한 주사건을 설정하고 있지 못한 점'⁶³⁾과 더불어 事象의 核心을 잡지 못한 점'⁶⁴⁾ 등은 분명히 이 작품의 한계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노동문학이라고 해서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작품이 취급하고자 하는 제재에 따라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의 작품들에 대한 비판에도 모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藝術大衆化論을 주장한 나프의 전반적 활동방침 중 다음은 바로 이러한 작품들의 분석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경향문학의 제재는 전위적 부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위적 요소에 의해 지도되고 영향을 받아 방향지워진 모든 부분의 투쟁, 모든 사회적, 일상적인 사실 및 다양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생생하게 파악하여 이것을 올바른 계급적 관점에서 묘사해야만 한다'⁶⁵⁾

5. 結 論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카프의 藝術大衆化論은 주로 이론적인 측면, 그것도 주로 조직논리에 국한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이에 대한

62) 조동일, 前掲書, p.440.

63) 張慶鐸, 前掲論文, pp.195-106.

64) 韓雪野, 前掲論文, p.107.

65) 임규찬, 前掲書, p.104.

연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기존 논의들은 이 논쟁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이 논쟁을 토대로 한 작품들의 검토에는 비교적 소홀했던 면을 보여준다.

본고는 기존논의의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해 藝術大衆化論의 實踐的 樣相을 검토하고자 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당시 이 논쟁에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던 ‘붉은 戀愛論’을 다루고자 했다. 본고는 특히 이를 다룬 작품들이 국내의 논쟁보다는 나프의 논쟁과 관련을 가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金基鎭의 논리에 근거해 通俗的 戀愛를 다룬 長篇形式의 傾向小説과 여러 면에서 공통점 및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理論優位의 東京派와 專門 創作集團으로서의 國內派간의 相關關係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작업들의 우선적인 전제조건으로서 ‘붉은 戀愛論’에 입각한 ‘通俗의이지 않은’ 단편소설들을 다루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붉은 戀愛論’이 프로문학내에서 성립될 수 있는 근거로서 題材와 階級的 實踐으로서의 內容의 관계를 기존논의를 통해 살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국외의 논의, 특히 소비에트와 이를 중점적으로 거론한 나프의 예를 우선 살피고 다음으로 국내의 논의를 검토했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당시 카프 진영내에서 ‘붉은 戀愛論’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살폈다.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흔히 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題材와 內容은 구별된다는 것이다. 題材는 방향성이 주어지지 않은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題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나, 이것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內容이란 곧, 主題로서 이는 작가의 世界觀과 思想的 方向에 의해 정리된 題材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애란 것이 프로문학에서 타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프롤레타리아 역시 인간인 이상 감정이 있으며,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르조아들과 달리 프롤레타리아에게는 계급이 중요하므로 연애

도 일관된 계급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특히 국외의 경우 연애를 용인하는 관점에서 정리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논자들은 이를 인정하는 쪽과 극좌적으로 이를 배척하는 양 경우가 비슷하게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실제 작품들을 살펴 본 결과, 크게 연애를 공식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주로 연애가 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거나, 그를 용인하더라도 같은 계급간의 연애만을 인정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소간 인간적인 감정의 묘사에 있어서 공식적인 처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李箕永의 「邂逅」와 「彩色무지개」는 시기적으로 얼마 차이나지 않는 작품으로 이 문제를 연속적으로 다루었다. 「邂逅」는 운동가에게 연애는 불가하다는 원칙이 개진되어 있으나, 상당히 인간적 감정이 증시되면서 사실적인 필치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직후에 발표된 「彩色무지개」의 경우 같은 無産階級간의戀愛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감정의 공식적인 처리를 보여주고 있어 오히려 「邂逅」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嚴興燮의 「地獄脱出」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해 無産階級의戀愛觀을 어느 정도 적확하게 보여주고는 있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에 비약이 심하고 논리성이 부족한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 문제를 '붉은戀愛論'에 입각해 다루고 있었다. 이 중 李北鳴의 「現代의序曲」은 부르조아 출신의 노동자가 過去의戀愛를否定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한 단. 그러나, 그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의 감정을 그런대로 충실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宋影의 「우리들의 사랑」, 「다섯해 동안의 조각편지」, 「石炭속에 夫婦들」 등은 '붉은戀愛論'에 입각해 다루어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運動과 思想이 궁극적으로 統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 작품들도 기본적으로 事件의論理的脆弱性, 中心事件의不在 등으로 비판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인간적 감정을 그리는데 충실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감정적인 면에

서만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일관된 階級的 觀點을 堅持함으로써 일찌기 다른 작가들에게서 보기 힘들었던 현실성을 획득해내고 있었다.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붉은戀愛論’을 다룬 소설들은 일단 프로 문학에서 일종의 禁忌視되었던 인간의 感情的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선적인 意義를 지닌다. 특히, 이는 당시 프로 문학운동의 排他的인 鬭爭 優先主義에서 벗어나 運動과 人間的인 問題를 同時에 統合하려함으로써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작품이 무조건적으로 의의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그러한 노력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중 宋影의 경우는 특히 ‘기본적 삶을 중요시’하여 ‘구체적인 삶의 요구’를 다루려고 함으로써 경직된 카프의 지도 노선에 대해 일종의 문제제기를 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⁶⁶⁾

끝으로 본고는 자료구득 및 논지의 한계상 이 문제를 국내, 외의 논쟁들과 연계시켜 심화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앞서 제기한 여러 문제들도 여기서는 단지 문제를 거론하는 선에서 그친 바, 이는 다음의 과제로 미룬다.

論文 및 參考文獻

閔丙徽, 「階級運動과 愛慾問題」, 『批判』, 1932. 2

安德根, 「타시스트에게 戀愛는 禁物인가」, 『批判』, 1932. 4

閔丙徽, 「藝術時感」, 『批判』, 1932. 7

梁彈實, 「戀愛와 文學」, 『批判』, 1937. 1

安 輝, 「階級的 性道德」, 『全線』, 1933. 1

金麗水, 「文藝時評」, 『朝鮮文壇』, 1926. 2

玄 民, 「프로文學과 戀愛」, 『東光』, 1931. 12

66) 박대호, 前揭論文, p.251

- 玄 民, 戀愛, 『四海公論』, 1938. 8
- 陳尚珠, 「맑스主義戀愛觀」-戀愛의 階級性問題, 『朝鮮日報』, 1931. 7. 28-7. 30
- 김성수, 「이기영 소설의 서설적 검토」-지식인 문제를 중심으로, 『成大文學』第26輯,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8
- 김 철, 「1920년대 한국프로문학의 전개와 사회운동과의 관계」-방향전환론 및 대중화를 중심으로, 『批評文學』3호, 1989, 韓國批評文學會
- 김 철, 「예술대중화 논쟁의 배경에 대한 일고찰」, 『청람어문학』 제1집, 청람어문학회,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8. 2
- 박대호, 「宋影문학의 구조적 특성」, 김윤식외편, 『한국 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 文學과 知性社, 1988.
- 박성구, 「일제하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 연구회편,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12집, 文學과 知性社, 1988.
- 윤여탁, 「예술 대중화 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先淸語文』合本 6卷(14, 15合輯),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1986. 10
- 이강옥, 「趙明熙의 작품 세계와 그 변모 과정」, 김윤식외편, 『한국 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 文學과 知性社, 1988.
- 李注衡, 「金基鎮의 通俗小說論」, 『국어교육연구』15,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회, 1983. 12
- 임규찬외음, 「일본 프로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사, 1987. 4
- 張慶鐸, 「宋影소설의 인물유형과 구성적 특징」, 『成大文學』제26집, 成均款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권, 지식산업사, 1988.
- 崔元植, 「沈熏研究序說」, 崔元植외, 『韓國 近代文學史의 爭點』, 創作과 批評社, 1990.

홍정선, 사회주의 운동단체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한신논문집』 제 3집, 1986.
.2

K.마르크스, F.엔겔스지음, L.박산달, S.모라브스키 지음, 김대웅 옮김, 『마르크스, 엔겔스 문학예술론』, 한울총서74, 1988.

藏原惟人 지음. 유엄하 편역, 『문화활동 세미나』, 공동체, 1988.

소연방과학아카데미편. 편집부역, 『미학의 기초』 1, 논장, 1988.

누시노프, 「세계관과 방법 문제의 검토」, (로젠탈의 지음. 홍면식 옮김, 『창작방법론』, 과학과 사상, 1990.)

누시노프, 세이트린 지음. 백효원 옮김, 『사회주의 문학론』, 과학과 사상, 1990.

킬포틴, 「창작방법의 확립을 위하여」, (루나찰스끼의. 김휴여음, 『사회주의 리얼리즘』-세계관과 창작방법의 문제, 일월서각, 1987.)